

무주군민 역량 키운다

군, 오늘 적상면 시작으로 읍면 순회교육 실시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가 관광 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군민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성숙한 군민의식 함양과 실질적인 군민역량강화에 목적을 둔 이번 교육은 마인드 업 특강(6·8월)과 공동체 역량 스킬 업, 서비스 스킬 업 특강(11월)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마인드 업 특강(6·8월) “무주의 매력을 알고 더 아끼는 시간”은 6월 10일 적상면(주민자치센터)에서 시작해 22일에는 부남면(주민자치센터), 23일에는 무풍(주민자치센터)과 설천면(구전동_덕

유산 레저바이크텔), 24일에는 안성면(주민자치센터)과 무주읍(전통문화의 집), 27일에는 설천면(주민자치센터), 8월 1일에는 무주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6월에 실시하는 주민교육은 관광문화기획 전문가 전고필 위원이 강사로 참여해 △무주군 향토 ·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가기 위한 주민의 역할과 자세, △우수 관광도시 사례 및 벤치마킹 포인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8월 공무원 대상 교육은 월드 DJ 페스티벌 감독이자 하이 서울 록 페

스티 공동기획자 류재현 감독이 강사로 나서 △우리나라 지역문화축제의 역사와 발전방향, △무주반딧불축제

의 우수성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접근방법,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군의 가치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사)무주군 관광협의회 맹갑삼 회장은 “군민역량강화 교육은 무주군과 무주군 관광협의회와 공동으로 매력 넘치는 무주를 가꿔 오고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을 중심으로 세우는 교육인 만큼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 2017 무주 WTF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 무주를 기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복지허브화 추진

좋은이웃들 1사 1촌 결연

완주군이 복지허브화 정착을 위해 좋은이웃들과 마을이 나섰다.

완주군은 9일 군청 1층 문화강좌실에서 ‘좋은이웃들 1사 1촌 결연식’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열었다.

이번 결연식에는 40곳의 사회복지기관과 40개 마을이장들이 1사 1촌을 맺었다.

참여기관은 노인·아동·여성분야 사회복지기관 등 40개이며, 마을은 사회복지기관이 많이 있는 소양면 8개, 나머지 읍면은 1개~4개 등 13개 읍·면마을이 고루 참여한다.

이번에 맺어진 ‘좋은 이웃들 1

사촌’은 1개 기관 및 시설이 1개 마을과 결연하여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조기 발견하여 일손돕기, 물품후원, 지역농산물 공동구매 등 다양한 교류활동 및 서비스를 진행한다.

또한 주거환경개선비, 생계비, 의료비 등 취약계층 가정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상호교류를 통해 마을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주민이 조기 발견될 수 있는 지역사회 관계망이 형성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좋은 이웃들 1사 1촌 사업’이 지역 내 복지는 지역안에서 스스로 해결하게 만드는 복지허브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특별블리스

진안군, 정수장 정밀점검 용역

진안군은 깨끗하고 맑은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정수장 정밀점검 용역’을 6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실시하는 정밀점검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정밀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취·정수장의 토목, 건축구조물 이상유무,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상수도시설물 절개지 상태 등 기타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정밀점검은 안전등급에 따라 1년에서 3년 단위로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진안군 정수장은 2년 단위로 정밀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번 정밀점검은 신뢰성 있는 점검이 되도록 꼼꼼히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방법 및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지적재조사로 주민재산권 보호 나서

안성 장기리 하이목 지구 측량

무주군은 안성면 장기리 하이목 지구(153필지 176만2,000㎡)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추진하게 된 것으로, 군에 따르면 지난 1월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들의 동의를 받아 지난 4월 전라북도로부터 사업지구 지정 승인을 받았다.

아울러, 5월 30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를 조사 및 측량 대행자로 선정해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측량에 착수한 상태다.

군 민원봉사과 박금규 지적담당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



무주군은 안성면 장기리 하이목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

항을 바로잡고, 위성측량(GPS) 등 최신의 측량기술 방식에 따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협의회와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

해 토지소유자가 점유한 현실경계 위주로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이 이뤄지도록 경계를 확정해 토지 이용가치를 높여준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장마철 대비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

완주군은 기존 공동주택, 시공현장,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안전사고 및 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6 우기대비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단지주변 배수로, 하수도 맨홀상태, 공사현장 구조물의 붕괴·토사유실, 단지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불안전 시설에 대해 제거, 보수·보강해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인명 보호를 위해 실시된다.

안전점검대상 건축물은 기존 공동주택 43개 단지, 시공 중인 공동주택 3개소, 공사중단 현장 2개소 등으로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32개 단지에서는 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관리주체가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11개단지와 시공중·공사 중단 현장 5개소에 대해 완주군에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직접 실시한다.

진성호 도시개발과장은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 영향으로 방재기준을 넘어서는 국지적인 호우(폭우)로 지하주차장, 지하 전기·기계실 등의 침수로 입주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우기철이 다가옴에 따라 사전점검 및 예찰을 강화하여 위험요소 제거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레드푸드센터 개장 장수군은 지난 8일 장계면에서 장수레드푸드센터 준공 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개장식엔 최용득 장수군수를 비롯해 관내·외 인사 및 단체, 지역 주민 등 2백여 명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주양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착수

주민편의 현장사무실 운영

진안군 주천면 주양지구 주민설명회를 지난 8일 마을 주민들의 큰 관심 속에 마쳤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토지소유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조사측량 및 향후 사업추진일정, 주민편의를 위한 현장사무실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

는 자리를 가졌다.

주양지구 재조사측량을 위해 기준점 선정 및 관측을 시작으로, 오는 20일 부터는 일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다.

군은 현장사무실을 주천면사무소 인터넷실(2층)에 마련해 측량시작부터 경계 확정때까지 매주 월·목요일(13:30~17:00) 이틀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시간대 여러 민원인의 등

시방문으로 현장경계확인 및 조정지연 등의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방문시에는 사전에 방문일정을 전화로(☎ 063-430-2264) 예약하여 안내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사무실을 운영을 통해 측량 및 경계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등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사업참여도를 높이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규제개혁 실무추진단 회의

진안군규제개혁 실무추진단은 9일 군청 상황실에서 실무추진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15년 지방규제개혁평가실적에 대한 분석,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 규제혁신 토론회 예비과제로 선정된 ‘용담댐 유희행정 재산용도 폐지로 효율적 재산이용’ 사례발표와 자체 발굴과제를 가지고 분야별 자유토론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전형욱 기획실장은 “규제개혁이란? 되게 하려면 방법이 있고, 안되게 하려면 규제 가 보인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편에서 열린 마음으로 규제개혁을 이끄는 실무추진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략산업과
063-430-2951